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Langara college는 Main street과 가까이 위치해있습니다. 49번 버스를 타면 학교 바로 앞에서 내릴 수 있어서 편리하며 skytrain 역과 가까이에 있어 교통에 편리합니다. Langara college의 규모는 큰 편이며 시설은 스타벅스, 서브웨이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활동적이며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점심을 할 때, subway 앞에 탁자가 꽂차기도 하는데 계단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것을 보며 주변의 시선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은 듣기, 말하기, 역량강화,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방식은 상당히 활동적인데, 우리의 수업은 순천향대학교 학생들끼리만 같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다. 수업시간에는 EO(English Only)규칙이 있어서 Langara college 안에서는 꼭 영어로만 대화해야하는 규칙이 있다. 과제는 간단하다. 스스로 저널을 작성하거나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수업준비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나누어준 바인더를 잘 들고다니면 된다.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이 많고 생각을 영어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참 좋았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Activity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우리가 방문한 곳으로는 MOV, 컬링, suspension bridge, 아쿠아리움 등이 있었다. 보통 필드트립이 있는 날에는 오전에만 수업을 진행하고 간단한 점심식사 후 오후에 다함께 버스를 타거나 버스를 대절하여 출발한다. 준비물은 딱히 필요하지 않는데 컬링을 할 때에는 장갑이나 편한 복장(신발 포함)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우리

	는 컬링하는 날이 변경되었다고 메일이 왔는데 확인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홈스테이 하우스에 다시 다녀와야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그날그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고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추가비용은 없었으며, 컬링이 가장 재미있었다. 컬링을 체험한 곳은 실제 밴쿠버 올림픽이 열린 곳이었다. 코치님도 즐겁게 가르쳐 주셔서 더욱 재미있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레인쿠버라는 별명에 알맞게 비가 많이 내리고 우중충한 날이 많았다. 습한 날이 많기도 했고, 아침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을 꼭 챙겨서 다니게 되었다. 저녁에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일정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주택가쪽은 어두운 곳도 있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안전상 특별히 위험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길거리에서 마리화나 비슷한 냄새가 많이 난다. homeless 사람들 중 눈빛이 이상한 사람들이 몇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 시설은 몹시 좋은 편이며 가족끼리 자유롭게 대화하는 분위기여서 너무 좋았다. 홈스테이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면 문단속이다! 학교에 갈 때나 집에서 외출할 때 반드시 문단속을 해야한다. 유의사항이 있다면 밖에서 외식을 하고 들어가서 저녁식사를 집에서 하지 않는 경우 꼭! 미리! 홈스테이 패밀리에게 말해야 한다.
식사	학교식당 (V) 외부식당 (V) 기타 (V)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식사는 1층에 홈스테이 학생들을 위한 주방에서 토스트나 시리얼을 간단하게 먹는다. 점심은 전날 저녁에 먹은 left over를 도시락으로 싸서 가져가거나, 간단하게 학교 식당에서 해결하기도 한다. 한국음식이 그리운 날이면 한국에서 가져간 컵라면을 먹기도 하였다. 저녁은 보통 밖에 나가 먹었는데, 저녁에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날에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전반적으로 맛은 좋았지만 한국 밥이 많이 그리웠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교통은 편리하다. 우선 버스와 skytrain이 이용하기 참 편리하다. 나는 홈스테이 집이 학교와 가까워서 버스를 타는 것과 걷는 것에 시간이 비슷하게 들었는데 버스를 타는 것이 조금 더 가깝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하여서 보통 버스를 이용하였다. skytrain은 빨라서 downtown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놀러갈 때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한, 배차간격이 짧아서

	굳이 시간표를 보고 가지 않아도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skytrain을 타러 가면 전광판에 목적지가 쓰여있는데 맥아더글랜을 가거나 랍스터피자를 먹으러 간다면 목적지를 잘 보고 타야한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약 50만원	저녁식사 외식비용 포함
관광비(기념품 포함)	약 90만원	기념품 값이 대부분이다
항공권	약 190만원	
합계	약 33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생필품은 굳이 한국에서 가져가지 않아도 캐나다에서 조그마한 것을 사고 쓰고 버리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캐나다에 도착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london drugs 나 rexall을 가서 사는 것을 추천한다. 가장 믿을만하기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할인도 많이하기 때문이다. 기념품은 틈틈이 사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에 남은 돈 계산하고 사는 것을 추천한다. 우선 여기저기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맥아더글랜의 경우 한번에 사면 할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홈스테이 가족들을 위한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 단기어학연수를 가는 것에 있어 가기 전에는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지만 다녀와서 드는 생각은 정말 다녀오기 잘했다는 생각이다. 비록 영어 실력이 수준급으로 늘어나거나 파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학연수를 가고 싶던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넓게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학연수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홈스테이 가족들을 통해, 홈스테이를 함께 하는 학생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고 해도 어학연수는 꼭 다시 오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서스펜션 브릿지



개스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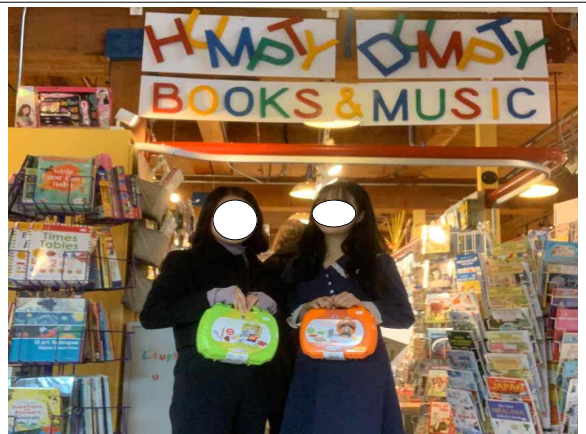
아이스스케이팅



스탠리파크 자전거



빅토리아섬 국회의사당



그랜빌 아일랜드